



행복한 부부생활



남편의 성욕이 낮아진 경우

부부간의 생활에서 아내는 흔히 남편이 언제나 먼저 성적 요구를 제기하거나 주동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가령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의 성욕 결핍 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각은 아내로서 남성의 성기능 특징을 잘 모르는 까닭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1) 성숙한 아내라면 성교 전에 일정한 시간의 감정어린 대화를 통하여 남편의 성욕을 돋구어 주어야 한다.

(2) 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성교 이외에도 성교를 향한 많은 기교가 있으며 남자 역시 포옹이나 키스, 애무 등을 소망한다.

(3) 남자의 성적 흥분은 아내의 사랑과 부드럽고 상냥한 마음씨에서 자극을 받게 된다.

(4) 남편의 몸이 편치 않거나 혹은 연령의 차이가 크다면 아내로서의 이해력은 보다 값진 것으로 된다

아내의 성욕이 낮은 경우

어떤 부녀자들은 성교를 부끄러운 행위로 간주하거나 심지어는 추잡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교 과정에서 늘상 피동적이거나 혹은 남편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여 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내로 하여금 성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성욕을 배양하고 특히 성의 쾌감을 느끼도록 남편이 기교를 짜내어야 한다.

남편은 성교 과정에서 난폭한 행위를 절대 삼가야 할 것이며 아내가 성 흥분의 고조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정을 되도록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임신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근심, 우려, 공포 등의 정서 불안으로 성욕

의 저하를 나타내므로 이 때에는 되도록 성교를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아내의 질병 특히 성기관의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혹은 남편이 음위나 조루 같은 질병으로 아내의 기분에 불쾌를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성교를 삼가는 한편 적극적인 치료를 거쳐야 한다.

아내의 성욕이 너무 왕성하다면

어떤 아내는 병적 상태에서 혹은 생리적으로 성욕 왕성을 과시하면서 남편과의 빈번한 성관계를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아내를 병원으로 보내어 내분비계통의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리적인 성욕 왕성은 흔히 체내의 성호르몬 분비가 과다하거나 자극성 화보나 서적을 통한 강렬한 성적 자극의 경우가 많고 극소부분의 경우는 결혼 전의 빈번한 수음과도 관계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에 대한 공포나 멸시적인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하는 한편 편하게 잠을 권유하거나 체육활동을 통하여 되도록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정신적으로 아내의 심리상의 공백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남편의 성욕이 너무 왕성하면

부부의 잠자리를 멀리하거나 서로의 침실을 달리하여 심리상의 자극을 피하여야 한다.

성적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화보나 서적, TV, 영화 등을 되도록 보지 않도록 한다.

잠자리는 딱딱한 침상이나 온돌방을 택하고 잠을 자기 전에 소금물을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냉수욕을 한다.

(4) 취미적인 오락 활동이나 체력단련을 통하여 정신력을 분산하고 담배나 술은 적게 하도록 한다.



(출처 : <http://www.danaa.com>, 다나아한의원 송병기 박사)